

간결한 문장

김완일 목사 / 1994

국어학자들은 말을 하는데 있어서 경제원리가 적용됨을 밝히고 있다. 필요한 자리에서 필요한 만큼의 말만 하는 것이 말의 경제성이다. 복잡하고 많은 말은 전달의 효과를 떨어뜨린다. 물론 이것은 반드시 길이의 장단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1 페이지의 메모와 2 페이지의 보고문은 다 그 나름의 길이를 필요로 한다. 문제는 그것이 최소한의 말로 내용을 전개한 것인가에 있다. 성경공부 현장에서 메시지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다.

좋은 문장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간결함을 지닌다. 인도자가 표현하는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쉽게 알도록 해야 한다. 인도자는 입말과 글말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글말은 눈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주어도 된다. 그러나 입말은 일회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줄 수 없다. 상대방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조금씩 정보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간결함을 지녀야 함이 필요하다. 간결함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관찰력의 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인도자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만 나열해서는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게 된다. 어떤 내용의 문장이든 포괄적인 범주가 있겠으나 그 문장만이 가진 특수성이 또한 있는 법이다. 바로 이 특수성이 생략되었을 때 모호함을 면하기 어렵다.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을 나누는 인도자의 문장표현은 항상 명료해야 한다. 이것은 단지 단순한 말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지닌다.

간결함은 인도자의 마음에서 시작되며 그가 자신의 언어구조 뿐만 아니라 참석자들과도 일치되어야 함을 포함한다. 인도자가 간결한 문장을 구사하려면 자기가 전달코자 하는 메시지에 관하여 간결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인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참석자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메시지가 참석자들에게 간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인도자 자신에게 간결해질 필요가 있다. 만일 인도자가 자신의 메시지를 간결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메시지를 간결한 문장으로 요약시킬 수 있다. 이 문장이 바로 메시지의 주제이다.

메시지가 간결해야 함에 대하여 헨리 조웨트 (John Henry Jowett)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모호함을 심오함과 혼동하지 말고 간결함이 천박한 것이라고 생각

해서는 안된다. 인도자는 명확한 개념들을 추구하는데 전력해야 하며, 그는 자신이 전하는 모든 메시지의 주제와 목표가 그의 능력이 미치는 데까지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함으로써 자신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출처 : 은누리신문